

특별전 감상 가이드

<소쿠오가 사랑한 명품 고미술>



하타케야마 잇세이(호: 소쿠오)
1881-1971

소쿠오는 누구인가요?

소쿠오의 본명은 하타케야마 잇세이입니다. 일본 다이쇼시대(1912-1926)에 에바라제작소라는 펌프 생산 회사를 경영한 인물입니다. 한편으로, 다도를 가리키는 '차노유', 그리고 일본의 전통 가면극 '노'를 매우 좋아하여, '소쿠오'라는 호로 불리며 이와 관련한 활동을 펼쳐나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쿠오가 50여 년에 걸쳐 모은 고미술품을 바탕으로 만든 미술관이 바로 '하타케야마 기념관'입니다.

함께 감상하는 즐거움

애써 모은 소중한 미술품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수집품에 찍는 도장을 소장인이라고 합니다. 소쿠오의 소장인은 '소쿠오 여중애완(即翁 與衆愛玩)'입니다. '소쿠오가 못사람들과 아껴 감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미술품을 혼자만 누리기보다는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기고자 했던 소쿠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愛與即
玩衆翁

특별전 <하타케야마 기념관의 명품-가면극 노, 차노유, 린파 스타일> 기간: 2021년 10월 9일-2021년 12월 5일

장소: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편집: 교토국립박물관 교육실 번역: 교토국립박물관 기획실 발행: 2021년 10월 9일

소쿠오는 일본, 중국, 한반도의 고미술품을 수집했습니다. 이 수집품은 크게 '차노유'(다도), 전통 가면극 '노', 그리고 '린파'라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차노유

노

린파

3가지 주제를 잘 보여주는 작품을 각각 소개하지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소쿠오

차노유

차노유는 손님을 모시고 가루차(말차)를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자리의 주최자는 가루차를 내는 찻사발 등뿐만 아니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족자와 꽃 등 다실에서 사용하는 차 도구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풍경

중국의 유명한 강가 풍경을 그린 <소상의 아름다운 여덟 경치[소상팔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개 낀 해 질 녘, 멀리 보이는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엮은 먹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본 수묵화에 큰 영향을 준 중국 화가 목계(생몰년 모름)가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국보 <안개 낀 절의 저녁 종소리 (연사만종)> 목계 그림으로 전해짐, 중국 남송시대, 13세기, 하타케야마 기념관 소장 (후기 전시)

아시카가 요시미쓰,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역사 속 유명 인물들이 소장했던 작품입니다.



전국시대 무장들이 동경하던 찻사발

흔히 '이도 다완'으로 불리는 가루차 찻사발은 한반도에서 제작한 일상 그릇입니다. 일본에서는 차노유에서 가루차 찻사발로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도 찻사발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셋을 '천하의 세 이도 (찻사발)'라고 부릅니다. 세 이도 가운데 하나인 이 찻사발은 '호소카와'라는 별명을 지녔습니다. 온화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찻사발입니다.



에도시대의 다이묘(영주)이자 다도가로 존경받았던 마사다이라 후마이, 그도 사용한 적이 있는 찻사발입니다. 허허.



중요문화재 <이도 가루차 찻사발 (별명: 호소카와)> 한반도 조선시대, 16세기, 하타케야마 기념관 소장 (전 기간 전시)

가면극, 노

노(혹은 노가쿠)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의 전통 가면극입니다.

역할에 따라 가면과 의상을 착용하고, 대사를 담은 노래, 무용, 악기 연주로 이야기를 전하며 연기합니다.

에도시대(1615-1868), 제가 나고 자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는 마에다 가문이 다스리는 가가번의 중심지였습니다. 가가번에서는 영주부터 평민들까지 모두 노를 즐겼지요.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도 노 노래(대사)와 연기를 꽤 한답니다. 노를 무척 좋아해서, 제 고향 가나자와에서 전해 내려온 노 가면과 의상도 많이 수집했지요.



<노 가면 오키나(하쿠시키조)>
후쿠라이 만들므로 전해짐, 무로마치시대, 15-16세기, 하타케야마 기념관 소장 (전기 전시)

노의 옛 원형을 전하는 가면

'오키나'라는 특별한 노를 연기할 때 쓰는 가면입니다. 오키나는 노가 지금처럼 정리되기 이전에 있었던 옛 노의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면은 노가 성행하기 시작할 무렵인 무로마치시대(1392-1573)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 가면의 형식이 확립되기 이전, 엄격하지 않은 느긋한 모습이 큰 특징입니다.

이 가면은 가가번을 다스린 영주가 소장했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생명력과 풍작을 표현한 노 의상

선명한 붉은 비단 바탕에 금색 구름과 눈 덮인 동백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 무대에서 착용하는 '가라오리'라는 화려한 의상입니다. 노의 여러 유파 가운데, 가가번에서 번성한 호쇼류를 지켜온 가문의 의상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가가번의 영주가 지녔던 노 의상이랍니다.



의상을 쓴 보관 종이에 에도시대(1615-1868)에 쓴 글자가 남아있는데, 어떤 노 공연에서 착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적었습니다.



<구름·눈 쌓인 동백꽃 가지 무늬 가라오리(겉옷)>
마에다 가문 전래, 에도시대, 분카 1년(1814), 하타케야마 기념관 소장 (후기 전시)

린파 스타일

'린파'는 일본 미술의 유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모야마시대 (1573-1615)에 다와라야 소타쓰, 혼아미 고에쓰로부터 시작되고, 뛰어난 후대 화가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거대한 회화를 비롯하여 일상에서 쓰는 작은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이 린파 스타일로 다채롭게 장식되었습니다.

그림도 글씨도 모두 주인공!



중요문화재 <사계절 풀꽃 바탕 그림에 쓴 『고킨와카슈』 두루마리>
 혼아미 고에쓰 씀 / 다와라야 소타쓰 바탕 그림, 에도시대, 17세기, 하타케야마 기념관 소장 (후기 전시)
 *전기 전시에는 이와 비슷한 <역새 그림에 쓴 『고킨와카슈』 두루마리>를 전시합니다.

제가 미술품을 수집할 무렵, 마침 '린파' 연구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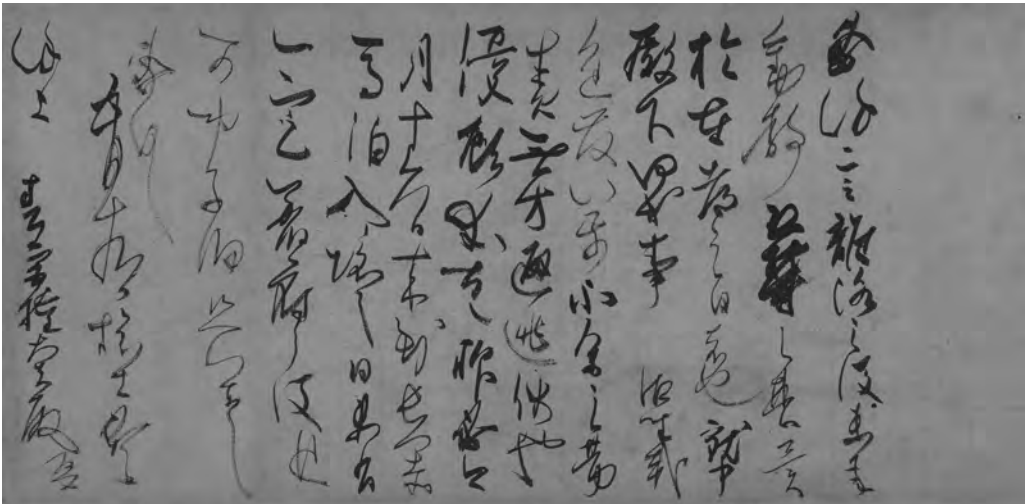


미술에 조예 깊은 수집가 선배들이 린파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을 보고, 저도 린파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네요.

다와라야 소타쓰가 금과 은으로 풀과 꽃을 그리고, 그 위에 혼아미 고에쓰가 일본 전통 시, 와카 시를 썼습니다. 소타쓰는 안료의 진하기를 다르게 하거나 여백을 두어 그림에 강약을 표현했고, 여기에 어울리도록 글씨를 쓴 고에쓰는 먹의 진하기, 선의 굵기, 글씨의 위치 등을 달리했습니다. 그림과 글씨가 어우러져 멋진 리듬을 만들어냈네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소쿠오는 그 밖에도 다양한 미술품을 수집했습니다.



국보 <교토(洛)를 떠난 후 쓴 편지[리라쿠조]>
 후지와라노 스케마사 씀, 헤이안시대, 쇼랴쿠 2년(991), 하타케야마 기념관 소장 (전기 전시)

후지와라노 스케마사(944-998)는 헤이안시대 명필 3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는 스케마사가 조카에게 보낸 것으로, 높은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멀리 가게 되었으니 대신 사과의를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편지의 첫 부분은 느긋하게 시작했으나 점점 붓이 빨라지며 뒷부분은 한 호흡에 써 내려갔습니다. 여정 가운데 급하게 쓴 글씨이지만 훌륭한 붓놀림을 보여줍니다.

이 대담하고 호방한 글씨를 보세요!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작품도 좋아했지만, 파격적인 작품에도 무척 끌렸답니다. 하하.

